

## 제 184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강연록

제목 일제 식민지기 경성신사 연구 -거류민봉제신사에서 국폐소사로의 종교적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문혜진 (한양대학교 세계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15년 5월 12일(화) 오후 12:00 ~ 16:00

장소 국제대학원(140동) 2층 GL룸

한양대학교 세계지역문화연구소 문혜진 연구원의 세미나가 5월 12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일제 식민지기 경성신사 연구 -거류민봉제신사에서 국폐소사로의 종교적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경성신사는 1898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부 남산에 소재했던 신사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관주도로 창건된 조선신궁과 달리 남산대신궁(경성신사의 전신)은 경성부 일본 거류민단에 의해 창건된 거류민봉제신사로서, 일본인의 일생통과의례와 관련된 민중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경성신사는 식민정권의 국가제의 시설의 부재로 1925년 조선신궁의 창건 전까지 국가제사를 관장했다. 조선신궁의 완공 이후로 경성신사는 경성부의 신사로 그 지위가 하락하며 경성부민의 신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1930년대 전시체제기에는 국폐소사로 승격되어 국가제의 공간으로서 그 제전이 국군주의화 되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일제식민지기를 관통하여 식민지 신사의 성격변화를 보여주는 경성신사의 사례를 통해 일제식민지기 신사의 역할을 파악해 보는 시간이었다.

문혜진 연구원은 일제식민지 신사의 종교성의 문제, 국가신도의 제의 및 제신의 문제, 그리고 국가신도와 관련된 식민주체의 문제라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먼저, 일제식민지 신사(거류민봉제신사)의 종교성 문제, 신도의 관습적·종교적 성격에 대해서 문 연구원은 거류민봉제신사의 창립 목적 및 일본거류민에게 있어서의 신사의 함의를 관습적인 종교적 의무의 수행을 통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 및 민족 공동체의 종교적 기관을 통한 사회적 영적인 위안의 추구로 보고자 하였다.

첫째, 일본거류민의 신사 창건은 관습적 종교의무의 수행을 통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관련된다. 이민생활은 이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로의 단순한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사회문화의 이식과 이민국 문화와의 접변이 일어나는 복합적 상호작용의 장이다. 따라서 해외 이민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물리적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주 이전의 고향과 동일한 건축양식과 삶의 방식을 재형성한다. 신사의 의례는 일본거류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절분·일생의 단계마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거류민들은 낯선 타지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관습적 의례의 수행을 위한 신사의 건립이 필요했다.

둘째, 일본거류민의 신사 창건은 불안정한 해외 이주 상황에서 사회적 영적인 위안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일본거류민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으로 약 80여명이 사망했으며, 1888년 조선아동 유괴소문부터 1892년까지, 을미사변(1895년). 아관파천(1896년) 이후부터 남산대신궁이 완공(1898년)될 때까지 극심한 배타적 행위와 때로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의 발발과 그에 따른 제물포조약의 수교 이후, 변변한 일본식 종교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추도제가 열리기 시작했다 즉, 1882년 임오군란으로 일본병사. 관헌뿐만 아니라 10여명의 거류민(민간인)이 사망했으며(『京城發達史』 1912: 18),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일본거류민(민간인) 20명이 사망했다(『京城發達史』 1912: 24). 소위 군인이나 관헌의 순직은 국가적 차원, 당시에는 일본 공사관 주도로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1882년 초혼사의 예에 따라 일본공사가 올린 국가적 차원의 제(祭)에서는 민간인이 배제되었으며, 1885년부터 일본거류민 유지들이 올린 추도제에서 민간인 사망자도 같이 제에 올려졌다. 다시 말하면, 제를 지내는 주체에 따라 제의의 목적 및 제의의 대상이 차별화된다. 군인. 관헌의 국가를 위한 죽음은 일본 공사관에 의해 초혼사의 예로 치러졌으며, 이후 단절되었다가 1885년 이후부터 일본거류민 유지에 의해 추도제가 재개되었다. 그럼, 왜 일본거류민 유지들은 양 변란의 순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제를 매년 올렸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문혜진 연구원은 일본거류민의 추도제는 국가적 차원의 ‘죽음의 기념비화’가 아니라 어령신앙, 즉 원령(怨靈)을 위로하는 사회적 영적인 위안과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염병 발발과 어령신앙은 신사제전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사의 부재로 전염병 방지제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령을 달래는 간단한 추도제는 거류민단의 무사안위(역병의 방지)를 기원하는 의미도 함축했을 것이다. 이미 양 변란으로 80여명의 일본인이 사망했고, 중국. 러시아의 순차적 득세를 등에 업은 조선인의 배타적 태도로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병이 발발했기 때문에 사회적 영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의례의 공간, 즉 신사의 건립이 절실했을 것이다. 또한 일본거류민 공동체는 변란이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회적 영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제의가 필요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죽음과 상관없이 어령을 달래는 추도제를 올렸다. 일본영사관의 공권력 강제 부재 속에 거류민자치를 주도한 총대역장. 거류지회거류민단의 공공업무의 하나가 신사의 유지경영이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거류민신사의 제사는 관제(官祭)도 사제(私祭)도 아닌 거류민사회의 공제(公祭)적 지위였다(靑井哲人 2005: 156). 따라서 한성부의 일본거류민은 관(官)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그들의 관습적인 종교적 의무의 수행 및 영적인 위안을 위한 의례적 공간의 필요성으로 남산대신궁의 창건을 자발적으로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신도의 제의 및 제신의 문제: 천황지배 정통성으로서의 국가제사에 대해서 문혜진 연구원은 새로운 국가 또는 왕조가 세워지면 정치적 권위의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전 시대의 국가제례 및 제례공간을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제사를 통해 계급질서를 상징하는 우주적 질서 및 제례공간을 재구축한다고 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또한 대한제국의 국가제사를 폐지하고, 1915년 황실제사를 토대로 재편된 일본 본토의 신사제식인 관국폐사 이하 제사령을 경성신사 제전에 적용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을 일본 천황중심의 우주적 질서로 재편하였다. 유형의 우주적 질서, 대한제국의 성스러운 제례 공간 역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을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조선총독부의 공중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파괴되었다. 이에 사직단·장충단 등은 공원화되었으며, 환구단·대보단 등은 폐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한일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국가제례 공간의 필요성으로 1918년부터 조선신궁의 창건 준비를 시작하였다. 조선신궁은 1925년 완공되었으며, 이에 1910년부터 1925년까지 국가제사를 수행할 제의 공간이 부재하였으므로 1898년 재경성일본인에 의해 남산에 창건된 경성신사(전 남산대신궁)가 ‘국가의 종사’를 대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1910년 한일병합이후부터 1925년 식민지 조선의 총진수 조선신궁의 완공까지를 대한제국 국가제사의 폐지와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국가제사의 구축기”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문혜진 연구원은 경성신사 제전, 제신, 사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후, 1930년대 경성신사 제전의 군국주의화와 국폐소사로의 승격에, 경성신사 제사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여기서, 경성신사는 1936년 국폐소사로 승격되면서 관공립적 신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조선신궁을 위시하여 국가제사를 수행할 의무가 생겼다. 이러한 관공립적 신사로의 지위의 변화는 법적으로 승격된 1936년 8월부터 폐전까지의 경성신사 임시제전에도 잘 나타난다.

1930년대 경성신사에서 신사참배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에서 학교교육의 세속화된 국민의례로 창출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890년 10월 30일 국가신도를 이론적으로 보강하여 교육칙어가 공포되었으며, 교육칙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는 반세기 동안 어진영봉제와 함께 황민화 교육을 위한 일본 국민교화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박진우 2006: 397). 이듬해에는 소학교 축일 대체일 의식 규정이 공포되어, 기원절·천장절 등의 축제일에 교사와 생도들이 식장에서 행할 의식의 내용들, 즉 ‘천황의 사진에 대한 배례, 만세 봉축, 칙어 봉독, 교장 훈시, 축제일 참가 합창’ 등이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31년부터 시작된 대륙침략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였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쟁 못지않게 국민정신통일이 필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1년에 신사참배를 일선 학교에서 먼저 강제하였다. 매월 초에 대표학생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사에서 중요한 제사가 있는 날이나, 일본의 각종 기념일에는 신사에 관한 내용을 배우거나 신사참배를 강조하였다.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의 신사참배의 강제는 1932년 민심작흥운동을 통해 실시되었다. 민심작흥운동은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국민정신총동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신사참배가 강제된 것은 1920년대까지 보통학교의 취학률이 약 20%로 저조하여(권경희 1999: 351) 교육을 통한 국체관념의 이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국민의례인 ‘국민정신총동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938년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지역적으로는 중앙연맹과 지방연맹, 학교를 포함하는 직업별 각종연맹, 이하 행정말단구역이나 부인들을 포함하는 애국반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한 관·민 전시통제 기구였다. 그리고 이들 각종연맹 및 애국반에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신사참배 외에도 공식적인 신사의 제전에 신사참배가 의무로 지워졌다.

이렇듯 조선인 신사참배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신궁의 2대 신직 아치와 야스히코는 “많은 신궁 참배자가 반드시 자발적으로 375개의 돌층계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참배 이외는 통솔자의 의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가?”라며, 교사의 지도하에 비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따르는 종교심 없는 신사참배를 비판하였다. 오가사와라 쇼조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참배는 배례를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다. 조선인은 ‘참배’가 아니라 ‘참관’을 한다.” 는 비평과 같이, 신직의 포교로 인한 종교성이 배제된 신사참배의 국민의례화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경성신사 섭사에 대해 중구토박이회 회원들은 텐만궁.이나리신사.하치만사를 제외한 노기신사만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태원부군당보존회.마포밤섬부군당보존회 회원들은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에만 참배했지 경성신사 섭사에 간 기억은 없다고 했다. 또한 1930년대 종로구 현 교보문고 자리와 1940년대 남대문 시장에 거주했던 Y씨(30년생, 여)는 학교에서 조선신궁을 참배한 후 경성신사 본전에만 참배했지 경성신사 섭사에 학생들이 참배하러 들르지 않았다고 했다며 본 강연을 마쳤다.